

HYPERTEAMS 2회차 · 50분

일 맡기기

작업 폴더 · 업무 · 자율성 · 터미널 · 예약

작업 폴더

등록이 곧 범위 설정입니다

등록한 폴더

홈 전체
/Users/me

프로젝트 상위
/Users/me/projects

프로젝트 하나
/projects/shop-api

결과

홈 전체
✓ 위험 — 개인 파일까지 범위 안

프로젝트 상위
✓ 넓음 — 여러 프로젝트가 섞임

프로젝트 하나
✓ 적절

작업 폴더가 곧 에이전트의 활동 범위입니다. 필요한 만큼만 좁게 잡으세요.

자율성

어디까지 맡길지

01

계획만

처음 맡길 때, 되돌리기 어려운 작업

02

파일 편집 자동 승인

권장 출발점. 되돌릴 수 있는 것과 아닌 것 사이의 선

03

전부 자동

기본값 — 안 고르면 이것. 검증된 반복 작업에만

04

기본

Claude Code 표준 동작

계획만 → 파일 편집 자동 승인 → 전부 자동 순으로 올리세요. 한 번에 가면 사고 수습에 더 걸립니다.

자율성

올려가는 순서가 있습니다

1

계획만으로 몇 번

실행이 안 되니 안전합니다. 대신
결과물도 없습니다

2

결과가 예상과 맞나

안 맞으면 자율성이 아니라 지시를
고칠 차례입니다

3

파일 편집 자동 승인

git 을 쓰면 파일 수정은 대체로
되돌릴 수 있습니다

4

같은 유형을 여러 번

결과가 안정적인 때만 전부 자동으로

폴더별 기본값 — 실험용은 전부 자동, 업무 프로젝트는 파일 편집 자동 승인, 배포 스크립트가 있는 곳은 계획만.

실습 · 20분

안전한 순서로 첫 업무

1

계획만

무엇을 하려는지 보기. 파일은 안 바꿉니다

2

읽기만 하는 업무

결과를 직접 검증해보기

3

파일을 고치는 업무

작고 되돌리기 쉬운 것부터

작업 전에 커밋해두세요. 처음 몇 번은 안전망을 두는 게 좋습니다.

터미널

업무와 성격이 다릅니다

업무

성격
목표를 주면 알아서

끝
완료되면 끝남

쓰임
맡기는 일

자율성 설정
적용됨

터미널

성격
✓ 내가 직접 명령을 침

끝
✓ 계속 열려 있음

쓰임
✓ 확인하고 조작하는 일

자율성 설정
✓ 무관 — 친 명령이 그대로 실행됩니다

만드는 건 업무에, 확인은 터미널에. 실무에서는 이 둘을 번갈아 씁니다.

터미널

화면을 닫아도 살아 있습니다

- 일반 터미널은 창을 닫으면 프로세스도 죽습니다. 여기서는 안 죽습니다
- 개발 서버를 띄워두고 폰으로 확인
- 오래 걸리는 빌드를 걸어두고 나갔다 오기
- 회사에서 시작한 작업을 집에서 이어보기

터미널에서 띄운 서버는 주소 하나로 열립니다. 밖에서 접속을 설정해줬다면 그 링크를 동료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.

예약

사람이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일을 시간에 맡깁니다

01

매일 아침

어제 로그에서 오류 모아 요약

02

매일 밤

임시 파일 정리, 백업

03

매주 월요일

지난주 커밋 정리해서 주간 보고 초안

04

매월 1일

사용량 집계, 의존성 업데이트 확인

분·시간·매일·평일·매주·매월 중에 고르고, 없으면 직접 입력으로 크론 식을 씁니다. 기본값은 0 9 * * * — 매일 오전 9시.

예약

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의 설계

1

실패했을 때를 적기

“실패하면 정리하지 말고
실패했다고 알려주세요.
추정하지 마세요”

2

전제 조건 확인

“데이터는 새벽 6시 배치로
갱신됩니다. 없으면 30분 뒤
다시 확인”

3

자율성은 낮게 시작

1주차 계획만 → 2주차 파일 편집
자동 승인 → 이후 전부 자동

4

결과를 어디로

화면에만 남기면 안 됩니다.
알림이나 파일로

틀린 결과를 내는 것보다 안 하고 알리는 게 낫습니다 — 아무도 안 보고 있으면 틀린 게 그대로 굳습니다.

정리

가져갈 네 문장

- 1 작업 폴더 = 활동 범위. 홈 전체를 등록하지 마세요
- 2 자율성은 계획만에서 시작해 결과를 보고 올립니다. 기본값은 전부 자동입니다
- 3 터미널은 내가 치는 것이라 자율성 설정과 무관합니다
- 4 예약에는 실패했을 때 무엇을 할지 반드시 적으세요